

‘거기서 거기’ 찍을 사람이 없다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 필

“도사님, 감사합니다. 도사님 말씀만 들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하던가요. 내 말만 잘 듣고 그대로 따라 하면 다 잘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게요. 이제 한 고비 넘은 것 같습니다. 한데 말입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입니다만, 처음 도사님 말씀을 들 때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고?” “아니, 손바닥에 임금왕(王) 자를 쓰고 다니라구요? 대단히 불경스러운 말씀이지만,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텔레비전 토론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잖아요. 내 사랑하는 마누라가 믿고 의지하는 도사님 말씀을 안 따를 수도 없고, 손바닥 글씨 위에 반창고를 붙이고 나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흠, 만약 그렇게 했으면 별 효험을 보지 못했을 거요.”

“그러게요. 하여튼 그 손바닥 글씨가 공개되자 난리가 났었지요. 도대체 ‘저 친구 무식한 건지 용

감한 건지 알 수 없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용감한 구석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무식하단가요? 고시에 수없이 떨어지긴 했어도 명색이 서울대 출신 아닙니까, 제가. 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다 지나간 일이니 패념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주술업에 미신업에 여기저기서 공격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납니다.”

“그래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시련도 없이 한 나라의 왕좌에 오를 수는 없는 법이지요.” “예. 그래서 저도 온갖 수모를 참고 견뎌낸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21세기에 웬 미신?’ 이냐고들 다그칠 때는 뭐라 답해야 할지 막막 하더라고요. 지지자가 써 준 거라고 대중 열버무리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아, 참. 그러다가 ‘국민을 왕처럼 극진히 모신다’는 뜻이라는 어느 네티즌의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카! ‘썸보다 해방’이라더니 정말 기막힌 생각 아닙니까. 이걸 진즉 알았더라면 토론에서 한 번 써먹었을 텐데...”

자질·도덕성 다 믿을 주지 못해

설마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재미삼아 꾸며 본 가상의 대화일 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이가 이랬을 리는 없다. 그래도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본 것은 실제로 정치인들이 간혹 미신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레이

건 대통령 부인 낸시 여사도 남편의 일과와 안전을 점성술사에게 의지했는지 않은가. 고 이병철 삼성 그룹 회장은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 자리에 관상쟁이를 들여 놓고 지원자의 관상을 보게 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도 전해진다.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옆길로 많이 뻘뻘. 어찌 됐든 ‘손바닥 글씨’의 주인공인 그 후보가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하지만 그는 술한 실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살얼음을 밟듯(如履薄冰) 매사에 조심해도(戰戰兢兢) 부족할 판에 잦은 말실수로 눈총을 맞았다. 특히 ‘전두환 옹호’ 발언은 호남의 분노를 자아냈다. 정제되지 않은 언행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안긴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이른바 ‘분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에도 시달려야 했다. 이런 각종 약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일까.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확산이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것이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대체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반비례하는 패턴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산 가격 폭등과 재산세·중부세 등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게 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

얼마 전 만난 한 친구도 그랬다. 그는 서울에 갖고 있는 집 한 채의 세금이 너무 올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과거 직장 생활 할 때 6억 원 정도 주고 산 것이라는데 근래 집값이 20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1년에 몇 십 만 원에 불과했던 재산세 300만 원까지 치솟았다며 푸념을 하는 것이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살아서는 보유세, 물려주면 증여세, 사후에는 상속세’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심지어 ‘상속세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종부세 때문에 살지도 못하겠다’는 말까지 한다.

그나마 ‘덜 나쁜 사람’ 고르라니

흔히 ‘세금을 대폭 올리고 선거에서 이긴 정권은 없다’고들 한다. 한데, 이를 어찌나? 지금 ‘조세 저항’(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의 흐름은 최고조여서 현 정부에 대한 불만도 그야말로 ‘몹시’ 수준이다.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권 교체 촉구를 강하게 열망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인 것 같다. 윤 후보는 ‘문 대통령의 반사제’라는 평이 말해 주는 것처럼 그는 이러한 반문 정서에 기대어 대선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어찌 됐든 이제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결정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상당한 혐의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덕성 면에서는 어느 한 쪽이 우위를 점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거기서

거기다. 심지어 대중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각기 수사 대상에까지 올라 있다. 둘 중 하나는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다. “윤주 윤전지와 초보 윤전지 중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는 말에도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것 같다.

그러니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물론 사표(死票) 방지 심리 때문에 원하지 않는 후보를 찍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뽕을 사뽕하는 사람’이 없다면 ‘선택’이라는 탄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겨우 피출소 피했다니 경철체가 버티고 있고, 연기 피하려다 불구덩이 속에 빠질 수 있는 형국이다. ‘쓰레기처럼 피하고 보니 똥처럼 만나다’는 말은 너무 과한가.

이럴 때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최선(最善)이 아니면 차선(次善)을 선택하라’고. ‘제일 좋은 사람’이 없다면 그나마 다음으로 좋은 사람’을 택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것도 이전 옛날이야기가 됐다. 요즘엔 ‘최악(最惡)을 피해 차악(次惡)을 고르라’고들 한다. ‘제일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나마 ‘덜 나쁜 사람’을 고르라는 것이다. 그만큼 찍을 후보가 없다는 얘기가.

대선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정권 교체나 정권 재창출이냐? 운명의 날은 시나브로 다가오는데, 우리의 고민은 마냥 깊어만 간다. 이쪽을 찍자니 이게 걸리고, 저쪽을 찍자니 저게 찼잖아. 문득 장뚱을 보니 가을바람에 낙엽이 휘날리고 있다.

수도권 확진자 폭증... 전국으로 확산

2425명 중 수도권 1989명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쏟아지는 양상이 지속하고 있다. 수도권 확진자 폭증세로 인해 전국에서는 10일 새벽 0시 기준, 2400명을 웃도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2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10일 새벽 0시 기준, 광주에서는 22명이 신규 확진됐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1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5542명이 됐다. 광주에서는 이날 기준 확진자 접촉을 통한 감염 7명과 직업소개소 행정명령 관련 2명, 다른 시도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 1명 등이 새롭게 확인됐다. 나머지 2명은 유증상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10일 새벽 0시까지 7명이 확진됐다. 이날 오후 6시까지 광양 3명, 목포·나주 각 2명, 담양·고흥 각 1명 등 9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전

남 누적 확진자는 3773명이 됐다.

전국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이다. 10일 새벽 0시까지 신규 확진자 2425명이 쏟아졌다. 전국 누적 확진자는 38만5831명으로 늘었다. 전날(1715명)보다 710명 급증하면서 지난 7일(2224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는 지역 발생이 2409명, 해외유입이 16명이다.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967명, 경기 863명, 인천 159명 등 수도권에 총 1989명(82.6%)으로 사실상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 지속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위증증 환자도 전남(425명)보다 35명 늘면서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인 460명을 기록했다. 직전 최다 기록인 지난 8월 25일의 434명보다도 26명 더 많다. 전남에도 위증증 환자 수가 74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형호 기자 khh@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서 가상레이싱 즐긴다

시뮬레이터 콘텐츠 마련 모터스포츠 대중화 나서

영암 전남 국제자동차경주장에 가상 레이싱을 즐길 체험공간이 조만간 들어설 예정이다. 전남도가 모터스포츠 마니아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발길을 사로잡기 위해 경주장 내외에 차별화된 체험 공간과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기로 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초 준공을 마친 국제자동차경주장 카트장 2층에 24석 규모 시뮬레이터 모션 체험 영상관을 비롯해 카레이싱 시뮬레이터 기구 등 총 6종류의 장비 42대와 35개 이상의 콘텐츠를 마련하기로 했다. 내·외부 인테리어도 레이싱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디자인으로 차용해 국제자동차경주장 위상에 걸맞은 스틸판점의 가상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서킷을 보유한 국제자동차경주장은 모터스포츠 마니아 위주 공간에서 새로운 레저스포츠 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 누구나 즐기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국내 최고 자동차박물관화단지 거대그림자 한 번 전남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자동차경주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즐기는 체험·문화공간 구축에 들어간 바 있다. 자전거도로, 휴게시설, 네트워드벤처, 질주어, 인라인스케이트장, 키즈 드라이빙장, 발물놀이터, 드론연습장, 클래식 전기카트 등의 시설이 대표적이다.



전남 영암에 위치한 국제자동차경주장이 다양한 문화체험공간으로 거듭난다. 사진은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슈퍼 6000 클래스' 머신들이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

장상구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국내 유일 1등급 국제자동차경주장을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자동차박물관화공간으로 조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지역 대표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t@kwangju.co.kr

임야 삽니다

3천평 이상
지분현영. 010-6837-4700

처분하기 힘든 부동산 교환

하실 분. 010-3605-5000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양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읍,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 조적벽돌외벽 스프라늄 129㎡(39평)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의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2층 기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사택내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순창, 금과, 방죽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네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성 가능 포함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매 8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양도 부지(주거 2종)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흥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양도 부지 4,220㎡(1,276평) 매 6.5~5.5만 원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통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용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응다수자생 생약재매 캠퍼장. 휴양지
능가주택 가능 매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원동 561-5(삼성힐힐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중주 010-3454-2389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은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영광군 공고 제2021-1400호
영광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 공고

영광군 나월면 일원에 “영광 나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상 송전탑 구간과 관련된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1일
영광군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내용

가. 위치: 전라남도 영광읍 용흥읍 제마리, 철곡리 일원 나. 규모: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변경 및 신설
•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량명	위 치	면적	면적	최소경리	비고
기장	6	전기공급설비	상당리 58-1 계곡리 999	총용량 8,101	129,611	전압고-155 (2009.4.13.)	-
변경	6	전기공급설비	상당리 58-1 계곡리 999	총용량 8,102	130,660	-	-
신설	10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철곡리 675-8 철곡리 신217-1	철곡리 0,347	6,198	-	-

•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시량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전기공급설비	•연장 및 면적 변경 •L:8,101m → 8,102m(증 1m) •A:129,611㎡ → 130,660㎡(증 1,049㎡)	전기공급설비 10의 신상에 따른 기준 설정 유지 변경으로 송전설비 면적 변경
10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구분 •위치 •L:347m, A:6,198㎡	영광 풍력발전단지 송전탑은 150W 편상(변압기) SSMC Gear • 최대용량인 편상 50 - 현행 규격에 가장 근접한 규격을 전기공급설비로 신설

2. 주민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2021. 11. 11. ~ 2021. 11. 25.(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의견 있으신 단계(개인)는 열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영광군청 도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계서: 게재생략(영광군청 도시환경과에 비지)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도시환경과(☎061-350-4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퍼스텍지니어링(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1년 11월 10일 개최된 양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사간의 합병하고 갑은 을의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양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고, 양은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관계 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이의 또는 주권의 제출이 없으면 합병 등에 이의 없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갑”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
200111-0011711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247
대표이사 김찬걸

“을” 주식회사 퍼스텍지니어링
205211-0009834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247, 2층
사내이사 김지연

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경동건설(이하 "갑")과 에이이치건설 주식회사(이하 "을")은 2021년 11월 10일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일체의 재산 및 권리의 무는 "을"이 승계할 것이며, 양사는 해산할 예정으로 양사는 결의하였 습니다.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와 주권소지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1일

“갑” 주식회사 경동건설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읍로 133-1
대표이사 이항재

“을” 에이이치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읍로 133-1
대표이사 이항재

光州日報 광공문의 | 062.227.9600